



司會：安箕泰 서울支部長：지난 1月 美國 “시카고”에 서의 全 美 洲 建 築 士 協 會 總 會와 이에 따른 세미나 및 워싱턴地區 建 築 士 會와 서울支部間의 結 緣 等 많은 重 責을 띠고 다녀오신 여러會員과 함께 歸 國 報 告 라 할까 自由로운 方 答 形 式 으로 會 長 님 과 함께 말 씀 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金 萬 盛 : 우선 全 團 員 이 無 事 히 歸 國 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會 長 님 을 위시 全 體 會 員 앞 에 감사 드립니다. 關 係 部 署 에 提 出 할 公 式 報 告 書 및 紀 行 文 은 俞 景 哲 전 理 事 와 羅 永 均 總 務 에 一 任 되어 있음으로 이 자리에서는 참석하신 團 員 여 러 분 들 이 자 然 스럽 게 느 낌 대 로 對 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本 人 부 터 느 끼 고 생 각 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앞으로 협회와 우리 모든 會 員 은 國 家 的 인 眼 目 中 에 我 們 의 活 動 을 向 上 發 展 시 켜 야 할 使 命 같 은 것을 느꼈고 둘째 건축 각 분야에 걸친 國 際 機 構 에 加 入 또는 유대를 開 拓 強 化 시 켜 我 們 의 地 位 를 確 固 히 해 야 되겠으며 셋째 海 外 視 察 事 業 을 80 年 代 의 政 府 施 策 과 並 行 하여 치밀하게 計 劃 하고 次 元 을 높 여 持 續 的 으로 擴 大 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以上과 같은 原 則 이 定 立 되 면 我 們 會 員 모 두 가 各 各 其 職 에 國 際 潮 流 에 발맞추어 過 去 와 現 在 그리고 未 來 의 建 築 像 에 對 한 見 聞 을 넓히고 會 員 의 教 育 내지 資 質 向 上 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實 例 로 서 워싱턴地區 20여명과 저희 一 行 18人 이 서로 격의없는 진지한 建 築 및 一 段 에 걸친 對 話 는 새로운 韓 國 建 築 人 의 비존을 提 示 하는 契 機 가 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建 築 과 關 連 된 分 野 를 開 拓 하는데 좋은 出 發 點 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市에 들렀을 때 마침 都 市 交 通 開 發 問 題 解 決 策 의 획기적인 一 環 으로 空 中 架 橋 電 車 의 試 驗 工 場 을 그곳 市 建 設 局 長 의 案 內 로 見 學 할 수 있는 機 會 가 있어 저희 一 行 과 줄 곧 合 流 했던 서울 市 金 昌 培 課 長 宣 係 長 및 具 技 師 와 함께 交 通 手 段 의 發 展 過 程 과 將 來 의 展 望 을 필립과 함께 진지하게 시청하고 討 議 할 수 있었던 점은 기억해 둘 만 한 일이라 봅니다.

俞 景 哲 : 오늘이 있기까지 일찍부터 金 團 長 의 辛 苦 와 經 濟 的 인 支 出 그리고 會 長 님 과 會 員 들 의 배려를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美 洲 地 域 에 시카고에서의 金 振 煥 前 美 洲 韓 國 建 築 家 會 長 任 과 특히 시카고까지 飛 來 하여 워싱턴 및 뉴욕까지 모든 面 中 에서 獻 身 的 으로 奉 仕 한 李 元 均 前 워싱턴 地 區 建 築 家 會 長 外 수 많은 在 美 建 築 家 들 께 감사드리고 將 次 미력한 보답이나마 꼭 해 야 할 것으로 思 料 됩니다.

더욱이 名 國 의 建 築 物 을 볼 수 있는 機 會 란 어느 나라의 建 築 士 도 선망의 對 象 이 되고 있을진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建 築 士 에 게 寄 與 的 인 期 待 와 教 授 級 僑 胞 案 內 人 의 熱 誠 에 많은 工 夫 와 感 銘 을 받았읍니다 흔히 海 外 見 聞 을 넓히는 데는 여러가지 人 的 構 成 에 依 한 長 短 點 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 경우 個 人 으로 도 나돌아 봤고 4 人 이 구 rup 이 되어 會 議 에 다녀도 봤지만 이번 처 럼 團 體 로 서 짧은 時 間 에 定 해 놓은 日 程 에 맞추어 비 行 機 票 , 호텔, 食 事 및 觀 光 버스에다 案 內 人 과 立 場 料 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신경 쓸 必 要 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我 們 의 時 間 을 活 用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침 7 時 부 터 12 時 間 동안 1 分 의 지체도 없이 12 個 都 市 및 國 家 를 古 代 史 部 門 從 古 新 開 發 地 區 까지 헤치고 다닐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도 계속 歐 洲 美 洲 또는 東 南 亞 로 展 開 되는 後 續 視 察 團 에 좋은 資 料 를 提 供 될 것으로 믿으며 未 洽 했 던 點 은 더욱 補 完 하고 치밀한 計 劃 으로 다듬어 나간다면 우리가 支 出 한 時 間 과 經 費 는 두 重 二 輕 보 상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宋 鶴 祚 : 同 僚 會 員 여 러 분 의 忍 耐 와 協 助 로 無 難 히 旅 程 을 마치게 된 것을 多 幸 으로 생각하며 어디서나 잘 協 同 하여 낯선 他 國 中 에서 모든 面 中 에서 韓 國 建 築 士 로 서 긍지를 지켜가며 他 의 模 範 이 될 수 있었던 점은 自 負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側 面 中 에서 集 約 한 다면 先 進 歐 美 洲 國 은 역시 부지런하고 正 直 하다는 것을 實 感 하였으며 모든 面 中 에서 一 絲 不 亂 하다고 할까 우리가 배워야 할 點 이 많 았다고 봅니다. 例 로 서 시카고에서 S. O. M. 라는 集 體 設 計 事 務 所 를 찾아 갔을 때 本 社 員 900여명 이라는 巨

大한 構成人員, 施設 및 設計組織에 對하여도 놀랐지만 名자가 맡은바 充實히 作業하는 光景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近來 우리들도 合同事務所 問題로 고민하는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그 運營面이라든가 여러가지로 參考될 事項이 많음을 認知했고 우리도 急變하는 建築景氣에 對替할만한 遠大하고 세밀한 目標을 세우는데 좋은 契機가 되었다고 봅니다. 其他나라에 對해선 여러 團員들이 나누어 얘기 하시겠지만 끝으로 日本에서 있었던 일 중에 大阪의 金晶玉 東部橋胞會長과 온 집안이 나머지 우리一行에 베풀어 준 誠意에 對해선 두고두고 그 신세를 갚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劉圭成: 단時日內에 世界一週란 어느 意味에선 수박겉할 기식이라고 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서 일해 주신 여러 同僚들의 보람으로 잘 求景하였읍니다. 좌우지간 事大思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네들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세밀하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누구나 外國에 나가면 愛國者가 되고 보고 듣는것이 우리와 比較가 되겠지만 이런 機會는 누구나가 꼭 갖어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않겠나 생각됩니다. 높고 크고 빠르게 만들어진 또 만들어지고 연구하며 開拓하는 새로운 建築과 新都市를 鳥瞰할때 우리도 精神 바짝차려 옛 建物과 現代의 調和, 높고 낮음의 均衡 人間을 위한 建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教育的 價值는 반드시 보아줘야 되겠다고 느꼈읍니다.

특히 에너지 問題만 하더라도 New York에서 느낀것 말고도 英國, 이태리의 自動車 크기에서 부터 太陽熱 利用에 이르기까지 思想도 할수 없는 次元의 開發研究가 進行되고 있음을 着過 할수 없었다고 봅니다. 가까운 日本에서만 해도 이分野에서 韓國人이 研究하는 比重이 크다는것을 알았고 機會있는데로 뜻있는 會員끼리 한번더 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자주 드나들어본 사람들이 鎖腐한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國外內에서 우리의 할 役割에 對해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손짓하고 있음을 부연하며 며칠전 건축가 총회장에서 이번여행의 일행이었던 鄭正治씨등을 만나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朴圭冰: 저는 出國時부터 飲食과 컨디션調節, 다시 말 씬드려 時差變化에 따른 수면不足과 짝짜여진 日程 때문에 우리一行中 朴運旭先生이 美國에서 事業上 아쉽게 헤어진后 唯一하게 프랑스에서 途中 下車한 처지가 되었지만 나름대로 잘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美洲大陸을 橫斷하면서 골고루 볼 수 있었던 量産

体制의 機能的 建築樣式과 파리에서 본 유럽의 近世建築의 雄壯함을 比較할 수 있었던 點 그리고 新都市 開發에 總力을 기울이는 現場에 接할 수 있었던 機會는 韓國建築界와 比較할때 여러모로 印象의이었으며 自信같은것도 느꼈읍니다. 우리도 努力하면 능히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조그만 例로 俞先生의 친척에 우리모두 초대받아 갔을 때 그분들의 정성스런 대접은 두고두고 감사드리기로 하고 그집의 施工度에 對해선 너무도 單純하고 合理的 이랄까? 오히려 韓國에서 지어내는 住居形態가 必要以上 더 잘 다듬어지고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있지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거칠기까지한 검소한 天井이며 白色의 壁 그리고 마루바닥 처리는 照明器具와 커튼, 벽걸이와 한幅의 그림 그리고 家具, 카펫으로 室內분위기를 決定짓고 있음을 감안할때 앞으로 우리會員들의 設計에도 뭔가 長短點을 잘 選別하여 우리固有의 멋을 되살려갔으면 합니다. 저로선 過去 東南亞視察도 經驗했지만 그때는 그네들보다 우리가 부지런 하다는것을 느껴왔는데 이번 歐美視察에선 우리가 반드시 그렇지도 않음을 建築以外의 事項에서 많이 느꼈읍니다. 勤儉節約한다고 할까요. 한편 흐뭇한일은 우리의 國力이 伸張하여 누구나가 歸國할때 고 민거리인 膳物쇼핑에 神經 쓸 必要가 없을 程度로 MADE IN KOREA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으며 그때문에 많은 시간을 더 구경하는데 할애할 수 있도록 뒤에서 꾸준히 도와준 職員들 그리고 남모르게 苦生하는 우리 産業일꾼들의 德인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黃鐘顯: 協會에서 實施하는 教育關係로 李泳萬氏等 여러분이 참석 못하셔서 혼자 얘기 하기가 많았지만 共通된 의견으로는 世界 여러나라의 古代에서부터 中世, 現代에 이르기 까지 綜合藝術인 建築物들을 길게는 볼수 없었으나 보람있는 여행이었습니다. 制限된 時間과 經費때문에 金洪柱, 閔庚辰會員 등 몇명에서 살인적인 日本의 宿食費로 因해 東京서 2泊3日하고 손을 들고 말았읍니다. 다음 機會엔 初行者를 위해서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볼때 日本에서 해산하지 말고 끝까지 旅行社에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手苦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時期가 겨울철이어서지 새한航空社에서 有名한 "힐튼 호텔"체인으로 해서 값싸게 名國의 훌륭한 宿食提供과 交通便 그리고 案内에 對해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經驗했던 同僚들에게 無理한 注文이 될지 모르지만 事前에 좀더 세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心理的인 위축과 약간의 당황없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지않나 봅니다. 또한 獨逸에서처럼 그곳의 엔지니어, 庶民層과 더불어

어 경제적으로도 아무 부담없이 함께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었던 낭만같은것이 지금와서 생각하니 다른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었을텐데 하고 푸념합니다. 계속해서 잘 다듬어 간다면 다른 회원들 한테도 권하고 싶은事業이라고 봅니다.

金正治 :여러분께서 좋은말씀 다하셔서 別로이지만 저로서는 美國에 對한 미련때문에 再入國하여 個人事情으로 出國이 늦어진 金基完회원과 合流코져 하였습니다. 時間이 아까워 뛰어다니다시피하다 제 大學院 卒業式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제일 늦게 歸國하였고 그러다보니 혼자서 旅行하게 되어 여러가지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렇고 予約이 안되면 衣. 食. 住는 물론 모든것에 攄할수 없는 社會구조이기때문에 많은 時間을 艱難속에서 보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어떤 事情으로 不參한 禹達亨 李鐘完 諸兄과 더불어 初行이 아니어서 늘 얘기 해 왔지만 外國旅行에서 얻어지는 工夫말고도 서로를 잘 理解할 수 있는 機會와 個性이 강한 異見들을 어떻게 調整해 나가는가도 배울 點이 많다고 보며 그런面에서 이번 視察는 잘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特記할 事項은 美國에서 吳世晃氏를 비롯한 이병담, 李鐘錦 諸兄이 20年來의 厄劫같은 눈길 속에서 마지막 空港으로 가는 途中에서 까지 車를 돌려세워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缺勸을해 가며 忠告로 消日한 일, 프랑스에서 建築家 金重業氏의 同生이 意慾적으로 熱誠을 다해 주신 일. 英國에서 博士 過程을 밟는 金長春先生의 大英博物館에 對한 것에서 부터 古蹟에 이르기까지 자상한 案内 그리고 伊太利에서 미술專攻인 鄭英雄 博士의 Rome 時代에서 現在에 이르기까지 體係있게 地下동굴까지 끌고다니며 유모어를 갖들여 우리와 一體가 되었던 일. 제네바에서 宋智烈 社長の 國際秩序에 對한 說明과 자상한 배려와 獨逸에서 金喜一 美術人的 産業視察등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僑胞들이 故國에 對한 期待와 建築에 對한 質問이 솔직히 말해 우리를 당황케 할때가 많았습니다. 최소한 建築士誌라도 읽어두고 가능하면 聖經도 알고 다녀야만 歷史의 對話는 勿論 모든 藝術에 對한 판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음번 視察團을 위해 말씀해 두고 싶습니다.

朴壽吉 :저희들이 이번에 제일 比重을 크게 두었다면 全 美洲 建築士協會 總會參席과 세미나 및 워싱턴市 建

築人會와의 姊妹結緣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豫期치 못했던 暴雪과 飛行場 廢鎖까지 물고 온 시카고 全市의 非常交通問題等으로 해서 애석함을 禁치 못하고 겨우 빠져나와 워싱턴에서나마 會合했던 일은 多幸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視察團에 거는 期待가 자못 큼니다. 우리도 世界建築界의 潮流에 부응하기 위해 協會가 主動이 되어 幅넓고 치밀하게 더 많은 準備들을 미리미리 해 뒤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제 우물안의 개구리時代는 지나가고 또한 海外교포 建築人과의 유대를 平時에 攄히함은 勿論 各國에 對한 建築情報를 事前에 入手해야 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一行中 寫眞術에도 조예가 깊으신 韓鐘彦會員等 여러 方面의 특징있는 事項을 部類別로 作成 展示라도 한다면 教育的인 價値도 크리라 봅니다.

새삼스럽지만 外國에서의 時間관념과 弗의 價値에 對해선 우리의 常識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東京서 僑胞로서 建築士인 文安斗先生이 저의 一行을 위해 베푼 送別파티등 이번엔 여러모로 攄를 끼친 일도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海外에 나가는 會員들을 위해서 뭔가 協會를 攄해 미려한 우리의 지혜와 協助가 있어야겠고 자주만나는 길도 터놔야겠다고 봅니다.

金斗變 會長 :多事多難했던 1978年度를 넘기면서 여러 事情으로 出發이 늦어져 많은 念慮를 하여 왔는데 全團員이 健康히 귀국하여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을 全會員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間 바쁜 旅程中에도 보내주신 消息으로 攄작해 왔고 또 攄정도 하였습니다. 며칠前에 美洲地區 워싱턴 支部長인 李元均教授가 보내온 公文에도 惡天候로 어쩔수 없이 總會와 세미나가 延期되었음을 涼解바란다며 攄정했었고 7月頃 共同 세미나 開催를 依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協會로서는 全國的인 攄로 擴大하여 建設部 關係部處에서도 海外見問을 無理없는 限度에서 攄장하고 있는 此際에 1979年의 事業으로 推進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金團長以下 여러분이 攄비싼 經驗과 資料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協會를 求心點으로 해서 攄提供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協會誌를 攄해 名種 紀行文과 本部 地方會館을 攄用한 寫眞展等 여러部問에 걸쳐 그間的 攄중된 時間과 經濟的인 支拂이 攄되이지 않게 하기위해 서로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歸國報告랄까? 座談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